

가스공사, 세계2위 LNG기업으로!

1983년 설립 후 양적-질적 성장 ... 2006년 도입량 2000만톤 돌파

1983년 석유를 대체할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8월18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가스공사는 설립 직후 인도네시아와 20년 동안 매년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맺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1986년 처음으로 LNG를 도입해 평택화력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했고, 1987년 2월에는 수도권에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연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연료체제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왔다.

당시 수도권 가스 공급은 4년에 걸쳐 공사비 5237억원, 한해 인원 110만명이 동원돼 이루어낸 역사였다.

1990년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 5만명 이상의 주요 도시에 가스가 공급돼 1993년에는 중부권(대전·천안·청주), 1995년 영호남권(익산·전주·광주·대구), 1996년 부산 지역에 공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 가스 사고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12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사고로 가스공사는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따가운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 1994년 32억원이었던 안전관리 투자비를 2002년 852억원으로 늘리고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사고예방과 체계적인 가스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1996년에는 공기업 최초로 제2창업을 선언해 전사적인 경영혁신 운동을 펼쳤고, 1997년 정부 투자기관에서 출자회사로 법적 지위가 바뀌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됐다.

1997년 외환위기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지만 전직원 급여반납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2001-2002년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가스공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10본부 33처 조직을 5본부 24처로 축소 개편하고 직속실 기구 및 건설조직에 팀제를 도입했으며, 2891명이던 인력도 2434명으로 조정했다.

1998년 7월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 민영화 방침이 결정돼 1999년 12월 총 1200억원의 증자 및 300억원 상당의 정부 보유 구주매각이 이루어졌다.

또 2002년 11월 강원권까지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장장 12년에 걸친 전국 천연가스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가스공사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달라졌다.

2001-2002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됐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아이디어 경영대상에서도 2연패해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인정받았으며, 2002년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1986년 처음 도입된 천연가스는 11만톤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00배가 넘는 1783만톤이 수입됐고, 2006년에는 가스 도입량이 2000만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 보급 성장세에 따라 가스공사는 단일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LNG기업으로 도약했고 한국은 세계 2위의 LNG 도입국이 됐다.

<Chemical Journal 2003/08/19>